

정보검색은 한가로울 때 해야 한다

1974년의 일로 기억된다. 당시 필자가 (재)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이미 자기테입(Magnetic Tape)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서 Chemical Abstracts Condensates(CAC)를 이미 구입해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국내 보급하는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아직 컴퓨터도 없는 주제에 왜 테입부터 먼저 구입하느냐라는 핀잔도 수없이 들었지만 “테입이 어디에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라고 설득하면서 테입을 모았었다. 컴퓨터도 없고 검색시스템도 없지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사방에 물색하러 다녔었다.

바로 이웃에 있는 KIST에는 CDC라는 당시로서는 국내최대의 컴퓨터가 있었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상식이상의 비싼 사용료를 물어야 했었다. 우리 센터에서 컴퓨터를 도입하려면 하세월이라 이웃 컴퓨터를 빌려 쓰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CDC기종에 알맞는 [정보검색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가를 철저히 뒤졌다. 드디어 한군데서 찾았다. 호주의 과학성(CSIRO)에서 바로 같은 기종을 쓰고 있었으며, 이것으로서 바로 우리가 구입한 CAC데이터베이스의 검색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입수하였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얻어와서 구입해 온 CAC데이터베이스를 이웃집 KIST의 컴퓨터를 이용해 검색서비스를 해보면 좋을텐데…라는 백일몽을 꾸었다.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신 우리 어머니의 농담이 새삼스럽게 생각날만큼 허황스런 꿈이었다. 그 농담은 “먹고 싶은게 너무 많은 아낙네가 있었는데, 칼국수의 꿈을 이렇게 꾸었다. 밀가루만 있으면 콩가

루를 얻어다가 옆집의 간장이 맛이 있다던데 그걸로 칼국수를 만들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참! 나무가 없군…하더라.” 바로 그 아낙네꼴인 셈이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호주에서 손님이 왔다. 한두시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뿔뿔이 기뻐했었고, 이 호주손님을 모시고 워커힐의 극장식당에 가서 식사대접을 했다. 사실 필자도 처음간 곳이지만… 두 세달후에 필자가 호주로 초청받아서 방문을 했고, 다시 서너달후에는 호주의 컴퓨터전문가가 모든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KIST컴퓨터에 실어주었다. 그리고 시험가동을 성공적으로 끝냈으며, 처음으로 컴퓨터에 의한 화학정보 검색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되게 된 것이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 데이터는 미국 것을 사온 것이고 하드웨어는 KIST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은 호주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 놓고서 한국초유의 컴퓨터 정보검색 시스템 개발이니 어찌니하고 떠들고 다닌 것을 지금 생각해봐도 부끄럽기만 하다. 유리공장에는 유리, 타이어공장에는 타이어… 라는 키워드를 미리 등록해두고 테입이 운송되어 오는 즉시 검색처리해서 출력하여 각 공장으로 우송하여 주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이용자가 700여회사나 되었다. 이것을 온라인 리얼타임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요구내용을 일괄해서 검색하여 주는 배치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배치방식 검색

으로는 만족하게 서비스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정보검색 서비스를 하려면 온라인 인터랙티브 검색시스템을 무리해서라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때가 아마도 1978년으로 기억된다.

드디어 우리방에 대형컴퓨터인 IBM-4341이 들어 오게 되었다. 이것과 함께 들어오게 된 정보검색 프로그램의 이름은 STAIRS(Storage an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이 프로그램에서 “찾으라”는 명령어는 “..Search”라고 쓰는데 외국사람들은 이것을 “닷닷 서어치”라고 발음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수많은 정보검색 프로그램 가운데서 별명이 닷닷 서어치라고 하면 아하, 이것은 IBM의 STAIRS로구나 라고 이해할 정도였으며, 아마도 정보검색분야의 바이블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본의 후지쓰가 이를 흉내내어 FAIRS란 것을 만들어 FACOM 이용자에게 보급하는 것도 보았다.

미국의 BRS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회사에서는 STAIRS를 기본으로 하여 BRS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마저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BRS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온라인 데이터서비스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말하자면, 단연 Dialog와 Orbit이다. 이들의 검색시스템은 모두 다르다. STAIRS에서 “찾으라”는 명령어는 “닷닷 서어치”였지만 Dialog에서는 “Select”란 단어를 쓴다. 거기에 비해서 Orbit에서는 “Find”란 단어가 같은 의미의 명령어가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이러한 검색명령어를 표준화하였다. 필자도 Orbit을 한참동안 쓰고 있다가 시스템이 이상하게도 말을 안들어 이상해 했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Dialog의 명령어를 아무리 써도 말을 들을 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씩씩해 한일도 많다. 물론 그 반

대의 경우도 많다.

이상의 각종 정보검색 시스템들은 용어를 근간으로 정보를 찾으며 여기에 부울논리(AND, OR, NOT)를 적용시켜서 검색하는 것은 모두가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우리말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충분히 연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한글용어로 검색하는 시스템이 몇가지 있지만 막상 사용하고 보니 우리에게 익숙한 Dialog의 검색방법에 비하여 아직도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느낌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으로부터 약 22~3년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보검색 서비스가 개시되었을 당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정을 당시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환기시켜 보았다. 오늘날에는 웬만한 개인용 컴퓨터 한대에 이러한 요건을 간단히 모두 만족하여 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걸로 안다. 이제는 정보매체 자체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매체개념만으로 현실을 보려고해서는 당치도 않다.

특히 데이터도 CD-ROM에 담고, 프로그램도 개인용 컴퓨터(PC)안에 쉽게 넣어둘 수 있으며 또한 PC통신망이 극도로 발달하여 정보의 전송전달의 문제는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글자만의 데이터베이스가 그림으로, 소리로, 영상으로 급격히 넓혀져 가고 있어서 글자만의 세계에서 조속히 탈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도 말(용어)과 부울논리로서 필요 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사람들은 바쁠 때 정보검색을 하며, 한가로울 때는 정보검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한가로울 때 찾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재)한국정보유통센터 회장